

Weekly Ulsan Economic Trends

# 주간울산경제

2023.08.28. ~ 2023.09.03.

2023년 9월 4일(월) 경제노동과

## ◎ 이슈 포커스

- 국제식량가격 상승, 국내 식품 및 외식물가 파급 우려

## ◎ 울산 산업 동향

- (자동차) 현대차, 도장공정서 탄소배출 줄이는 저온 경화기술 개발
- (석유화학) 국제유가, 사우디 감산 연장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상승
- (조선) 울산시, 운항 선박에서 부품 자체 제작 3D프린터 개발 추진
- (비철금속) 고려아연, 현대차와 배터리 동맹

## ◎ 울산 경제 동향

- (소상공인) '23년 9월 울산 소상공인, 전통시장 경기 전망 밝음
- (산업활동) '23년 7월 울산 생산, 투자는 각각 감소, 소비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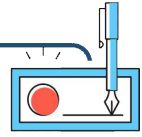
## ◎ 국내외 주요 이슈

- (국내) 7월 전산업 생산 감소 등은 일시적 요인, 기조적 회복흐름 유지
- (해외) 최근 글로벌 경제 이슈: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동향



## 이슈 포커스

Issue Focus



### 국제식량가격 상승, 국내 식품 및 외식물가 파급 우려

#### ■ 한국은행 분석,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식료품물가 상승세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

- 국내 집중호우, 폭염,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 빠르게 상승, 여기에 흑해곡물협정 중단, 일부 국가 식량수출 제한 등이 겹치면서 식료품 물가 우려 확대
  - 3월 영국 식료품 물가 19.2% 상승,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요국에서도 지난해 이후 식료품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
  - 국내외 식료품물가 상승세는 각국의 작황 등 수급상황, 인건비 등 국별 여건, 팬데믹에 따른 공급병목, 러-우 전쟁 이후 곡물 및 비료 공급 차질, 각국 식량 수출 제한, 이상기후 등 글로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
- 향후 국내외 식료품물가 오름세 둔화 속도가 더딜 전망, 중장기적으로 엘니뇨, 이상기후 등이 국제식량가격의 가장 큰 상방리스크로 잠재해 있다는 평가
  - 올해 중 강한 강도의 엘니뇨 발생이 예상, 과거 엘니뇨 기간 이후 국제식량가격 상승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, 해수면 온도가 예년 대비 1도 상승할 때 평균적으로 1~2년 시차를 두고 국제식량가격이 5~7% 상승
  - 식료품과 외식물가는 하방경직성과 지속성이 높고, 체감물가와의 연관성도 높아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, 향후 국내 물가 둔화 흐름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
  - 가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담이 증대하고, 실질구매력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후 식료품물가의 흐름과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

〈출처〉 연합뉴스(23.8.28.), 한은 “국제식량가격 상승→국내 식품·외식물가 파급 우려”.



### (자동차) 현대車, 도장공정서 탄소배출 줄이는 저온 경화기술 개발

#### ■ 현대자동차가 도장 공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장 기술 공개

- 이번 도료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탄소 배출과 가스 사용량을 각각 40%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 - 도장 공정은 자동차 제조 공정 중 가장 많은 에너지(약 43%)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탄소 배출도 가장 많은 편에 속함
  - 이번 도료는 기존보다 50°C나 더 낮은 온도에서 경화되어 온도를 과도하게 높일 필요가 없어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모 절감이 가능
  - 이 기술을 국내외 모든 현대차 공장에 적용하면 한 해 동안 자동차 제조 공장 중 배출되는 CO2 중 1만 6천여톤 저감 가능
- 현대차는 울산 5공장에서 이 기술을 시범 적용해 제네시스 G80 차량을 시험 생산했으며 지속적으로 운행 및 모니터링하면서 기술의 본격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

〈출처〉 AVING('23.8.30.), 현대자동차, 車 도장 공정서 탄소배출 줄이는 저온 경화기술 개발...“2045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것”.

### (석유화학) 국제유가, 사우디 감산 연장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상승

#### ■ OPEC+ 감산 연장으로 공급 제한 유지,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위축을 상쇄할 것이라 전망 확산

-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(WTI) 10월물 가격 전거래일 대비 2.45% 오른 83.63달러, 브렌트유는 전일보다 1.13% 상승한 86.83달러에 체결

- 사우디가 하루 10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10월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측, 이에 유가 상승 기대가 커진 상황
- 사우디산 원유가 단기간 내 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, 원유 및 석유제품의 상업적 재고 수준 지속 하락으로 글로벌 영향도 점점 커진다고 평가(삭소방크)
- 올해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는 배럴당 82.45달러로 7월 조사 예측치 및 브렌트유 평균가격보다 높음, WTI 전망치도 배럴당 77.83달러로 전달 전망치 상회(로이터 실시 전문가 설문조사)
- 미국의 심각한 경기침체 가능성은 완화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중국의 수요 증가는 불가능할 것, 유가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사우디와 러시아 주도 OPEC+의 상당한 수준의 공급 규제가 필요할 것(DBS 은행 에너지 부문)

- 기업이 자금난에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만큼 울산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

〈출처〉 조선비즈('23.9.1.), 국제유가, 사우디 감산 연장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상승...WTI 2.45%↑

## (조선) 울산시, 운항 선박에서 부품 자체 제작 3D프린터 개발 추진

### ■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 등 10개 기관이 운항 선박 안에서 유지·보수·운영 (MRO) 관련 부품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팅 시스템 개발 추진

- 운항 선박에서 MRO 부품을 신속하게 자체 제작해 조달할 수 있는 적층 설계·공정 자료관을 갖춘 특화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과 실증이 목표
  - 동 사업이 현실화하면 운항 중 선박의 MRO 자재 양산품 수급일이 현재 최장 13일에서 2일로 11일 감소, 주문제작품은 최장 233일에서 231일이 단축
- 울산시는 올해부터 2025년 12월까지 46억원(국비 30, 시비 6, 민자 10)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
- 이를 통해 조선해양산업 국제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〈출처〉 연합뉴스('23.9.1.), 울산시, 운항 선박에서 부품 자체 제작하는 3D프린터 개발 추진.

## (비철금속) 고려아연, 현대차와 배터리 동맹

### ■ 현대차그룹과 고려아연이 핵심 배터리 원재료 확보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2차 전지 밸류체인 포괄 사업제휴 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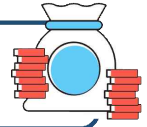
-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 LLC로부터 5272억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
  -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 글로벌 LLC에 신주 104만 5430주 발행하기 함
  - 고려아연은 신규 유치 투자금을 2차 전지 소재사업 등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
  - 이번 사업제휴로 고려아연은 2차 전지 소재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판매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양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핵심 원재료 공급망 확보, 배터리 중간재 공급, 미래사업협력 등 추진
  - IRA를 충족하는 핵심소재원료 확보를 위한 공동 광산투자 및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전략소재인 니켈 공급망 구축 협력
  - 폐배터리 재활용 협력 등 사업 기회 검토 및 필요 기술 공동개발 등 미래사업 확장

〈출처〉 매거진한경(23.8.30.), 현대차그룹·고려아연 ‘배터리 동맹’...“IRA 파고 함께 넘자”.



## 울산 경제 동향

Ulsan Economic Trends



### (소상공인) '23년 9월 울산 소상공인, 전통시장 경기 전망 밝음

#### ■ '23년 8월 소상공인·전통시장 경기체감지수는 증가로 전환되었으며, 9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큰 폭 확대

- 8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65.6으로 전월대비 10.4p 증가하였으며, 전통시장 경기체감지수는 52.7로 전월대비 17.0p 증가

- 전국 소상공인 체감지수는 63.6으로 광주,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, 울산의 경우 전국을 상회하는 수준
- 전국 전통시장 체감지수는 50.5로 전 지역이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, 울산은 전국 평균을 상회

※ 체감경기 호전 사유는 방학, 날씨 등 계절적 요인, 휴가철이라서(음식점업 등), 유동인구 및 고객 증가 등이 있으며, 악화 사유로는 날씨 등 계절적 요인,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(가정용품 등), 유동인구 및 고객 감소, 휴가철이라서 등이 있음

- 9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101.0으로 전월대비 22.9p 증가하였으며,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118.8로 전월대비 59.0p 증가

- 전국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98.0이며, 광주(25.2p), 울산(22.9p), 서울(21.8p), 대구(18.3p) 순으로 전월대비 상승
- 전국 전통시장 경기전망지수는 107.4이며, 울산(59.0p), 광주(54.1p), 경기(50.0p), 세종(50.0p) 순으로 전월대비 상승

※ 체감경기 호전 사유는 신학기, 날씨 등 계절적 요인, 명절이 있어서(개인서비스업, 축산물, 수산물) 등이 있으며, 악화 사유로는 명절이 있어서(음식점업 등),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(제조업, 가공식품 등) 등

〈출처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'23.8.31.), 2023년 7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.

## (산업활동) '23년 7월 울산 생산, 투자는 각각 감소, 소비는 증가

### ■ 전년동월대비 생산과 투자는 각각 4.8%, 61.2% 감소, 소비는 9.3% 증가

※ 전월대비(계절변동조정지수): 생산 1.7%, 출하 5.8% 각각 감소, 재고 1.9% 증가

#### ● (생산) 전년동월대비 생산 4.8%, 출하 6.4%, 재고 0.8% 각각 감소

- (광공업 생산) 자동차(9.1%), 기계장비(24.4%) 등은 늘었으나, 석유정제(-19.9%), 전기·가스·증기업(-34.6%)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4.8% 감소
- (광공업 출하) 자동차(5.2%), 기계장비(20.0%) 등은 늘었으나, 석유정제(-16.4%), 기타 운송장비(-22.9%)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6.4% 감소
- (제조업 재고) 자동차(48.0%), 기계장비(77.6%) 등은 늘었으나, 화학제품(-10.2%), 1차금속(-14.6%)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0.8% 감소

#### ● (소비)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2.0으로 전년동월대비 9.3% 증가

-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7.1%, 대형마트 11.3% 각각 증가
- 상품군별로 오락·취미·경기용품, 화장품, 가전제품, 기타상품, 음식료품, 신발·가방은 증가, 의복은 감소

※ 전월대비 백화점은 0.2%, 대형마트가 10.9% 각각 증가하여 5.8% 증가

#### ● (투자) 건설수주액은 3,94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.2% 감소

- (발주자별) 공공부문은 기타공공단체에서 줄었으나 공기업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452.0% 증가, 민간부문은 기계·장치에서 늘었으나 부동산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58.6% 감소
- (공종별) 건축부문은 공장에서 늘었으나 신규주택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55.7% 감소, 토목부문은 발전 및 송전에서 늘었으나 기계설치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72.7% 감소

〈출처〉 동남지방통계청('23.8.31.), 2023년 7월 울산광역시 산업활동동향.



## 국내외 주요 이슈

Korea & Global Issues



### (국 내) 7월 전산업 생산 감소 등은 일시적 요인, 기조적 회복흐름 유지

#### ■ 전산업 생산 회복흐름 유지, 경기반등 위해 수출, 투자, 내수 활성화 총력

- 전산업 생산 3개월 만에 감소했으나, 월별 변동성이 큰 공공행정 제외 시 보합수준이며 기조적 회복흐름 유지
  - 물량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반등조짐, 서비스업 회복흐름 지속, 선행지수 3개월 연속 상승
  - 소매판매·설비투자가 조정 받았으나, 기상악화 및 자동차 개소세 변동 등 일시적 요인
- 어려운 국내외 실물경제 여건 지속, 최근 경기 둔화 흐름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
  - (생산) 반도체 등 수출물량 회복 흐름,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, 중국 단체 관광 재개 등이 긍정적, 다만 부동산 부문을 둘러싼 중국 경제 불확실성 확대, 일부 생산 현장 파업 발생 시 일시적 생산차질 가능성 등이 부담
  - (소비·투자) 양호한 고용상황과 심리 회복세, 누적된 가계저축 등이 긍정적이나, 반도체 감산에 따른 단기적 투자 조정과 건설경기 불확실성, 가계 부채 부담 등이 리스크 요인
-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위해 수출, 투자 활성화 총력 지원, 내수 개선흐름 회복에 역점
  - 국내외 시장 및 실물동향 24시간 점검, 이상 시 적기 대응,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에 만적
  - 금융, 세제지원 등을 통한 수출, 수주 활성화, 투자 애로해소, 킬러규제 혁파, 세일즈외교 후속성과 창출노력
  - 소득여건 개선, 내수활력 제고, 중국인 관광 활성화 등 추진

〈출처〉 기획재정부('23.8.31.), '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.

## (해 외) 최근 글로벌 경제 이슈: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동향

### ■ 주요국 통화정책은 국가별 경제 여건에 따라 차별화

#### ● 미국 인상, 일본 동결, 중국 인하

- 미국 연준(5.25~5.5%)은 한차례(6월) 동결 이후 인상 재개, ECB(3.75%)는 9차례 연속 인상, 캐나다(5.0%)는 두 차례 연속 인상
  - ※ 각국은 금리 인상의 근거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
- 일본(-0.1%)은 동결 기조 지속, 호주(4.1%)는 6월 인상 후 두 차례 연속 동결
  - ※ 다만, 일본은 수익률곡선관리정책\*을 수정(10년물 국채 지정가격 오퍼레이션 금리 0.5% → 1.0%)하여 실질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1.0%까지 오르는 것을 허용
    - \* 장기금리가 일본은행의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경우, 일본은행이 정해진 지정가격 오퍼레이션 금리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정책
- 중국은 1년물 대출우대금리를 인하(3.55% → 3.45%)
  - ※ 최근 중국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,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,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소비, 생산, 수출 등 대부분 지표 둔화

#### ● (전망) 당분간은 국가별 경기 상황의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

- 미국은 양호한 고용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으며,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잔존
- 유로지역은 5~6%대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
- 중국은 부동산 부문 불안,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져,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

〈출처〉 외교부('23.8.29.), 국제경제동향 Vol 2023-8호